

비 내리는 호남선·전라선 이용객들 '분통'

광주송정~목포, 익산~여수
모든 열차 운행 중지
지반 약한 '일반 철로'의 설움
하루 4만여명 갈 길 잃어
광주~서울 KTX·SRT 지연



19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 대합실에 설치된 전광판에 호남선(광주송정~목포)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는 안내 문구가 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난 6월 25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가 연일 쏟아진 여파로 예민 광주·전남 철도 이용객들의 설움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장맛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호남선·전라선 철도를 전면 통제하고, 호남고속선을 달리는 KTX도 잇따라 지연 운행하면서 철도 이용객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8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호남선(광주송정~목포)과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을 이용하는 KTX 운영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 경부선(동대구~구포~부산)과 경부선(동대구~진주) 노선도 KTX 운영을 일시 중지했다.

앞서 코레일이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전국의 모든 일반열차 운영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KTX 운행마저 멈춰선 것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운행 중지 조치는 지속된 장맛비로 노반(선로 밑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탈선·토사유출 등 사고 위험이 큰 데 따라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운행 중지 선로가 광주·전남에 몰리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원성이 터져나왔다.

코레일이 광주·전남 기차역의 승하차 인원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호남선·전라선의 하루 이용객은 4만여명에 달한다. 호남선은 하루 평균 2만 4000여명, 전라선은 하루 평균 1만 6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하루아침에 갈 길을 잃은 셈이다.

이번에 운행이 중지된 노선들은 모두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철도 구간이며, 전라선·호남선의 경우 일반철도이면서도 고속열차 주행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늦어지면서 광주송정역~목포역 구간이 아직도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철도라는 점이 이번에 KTX 운행 중단으로 이어졌다. 집중호우가 거북이 같이 진행돼 온 호남선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콘크리트 노반을 깔고 있는 고속철도와 달리 일반철도는 흙을 노반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아 노반 유실 위험이 크고, 산지와 경사지 터널을 끼

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산사태·토사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펀터널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토사유출로 흩어졌던 선로를 달리다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도 운행 중지의 계기가 됐다.

광주송정역과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철도 SRT와 용산역을 오가는 KTX 등 호남고속선 열차는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서행 운영을 하고 있어 모든 열차가 평균 20여분씩 연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열차 도착이 50여분 가까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송모(58)씨는 지난 17일 밤 8시 30분께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송정역으로 향하는 KTX를 탔다가, 열차가 시속 80km 수준으로 서행하는 바람에 당초 도착 예정시각보다 45분 늦은 밤 11시 15분이 돼서야 도착했다. 송씨는 "한 시간 가까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도 미리 받지 못했는데 코레일 앱에는 '자연배상 없음'이란 말만 떠 있어 황당할 따름이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반 상태 및 강우 현황에 따라 20일에도 운행 중지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예매했던 표는 별도의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자동 환불 조치된다.

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선로 이용을 차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다"며 "21일 오전 첫 열차부터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미일, 일본에서 북핵수석대표협의...北도발 대응 논의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핵수석대표가 20일 일본에서 만나 북핵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다. 김건 본부장은 19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약 6달만으로, 이들은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 12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을 규탄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는 북한의 억지 주장을 한목소리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기력한 상황에서 독자제재 등 3국간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새로운 둔증로 지목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1시간 9860원

올해보다 2.49%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9일 밤샘 논의 끝에 올해보다 2.49%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9면〉
지난 5월 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당시부터 '시간당 1만원'을 넘길지가 최대 관심사였으나 노사 간 치열한 공방 속에 결국 1만원에 근접한 수준에서 정해졌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이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0년(적용 연도 기준)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을 달성하려면 매년 최저임금을 15.7%씩 인상해야 했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은 2018년 7350원으로 16.38%, 2019년 8350원으로 10.89% 올랐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팔라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겹쳤다.

결국 인상률은 크게 낮아졌고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으로 2.87%, 2021년 8720원으로 1.51% 오르는 데 그쳤다가 2022년 9160원으로 5.05%, 올해 9620원으로 5.0% 인상됐다.

/연합뉴스

광주 상수 침수취약지구 관리 '주먹구구' ▶6면

김민재, 독일 바이에른 뮌헨 입단 ▶1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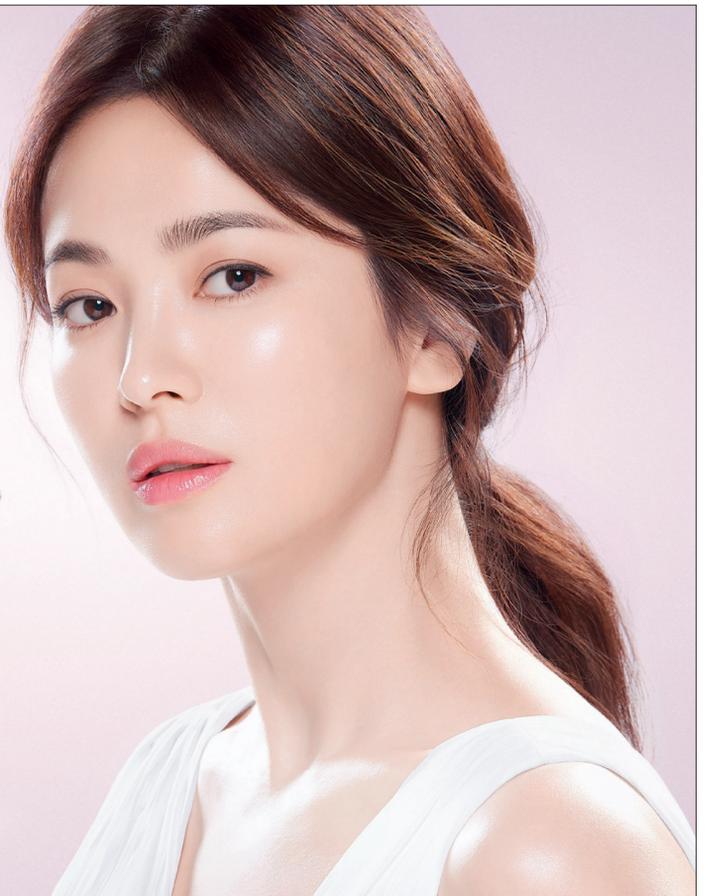


신 팔도 명물 - 일산 열무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승만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